

심근경색증발생의 일간, 계절간 변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내과
김범수*, 강진호, 서원태, 이만호, 박정로

일간, 계절간 주기변화는 심혈관계질환과 관련이 있어서 심근경색증발생이 아침에 그리고 겨울철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도 심근경색증발생시각의 일간, 계절간변화가 주기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연구를 시행했다.

1969년부터 1997년까지 본원에 심근경색증으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월별, 계절별 그리고 일간발생빈도를 조사하여 이들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심근경색증발생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간주기에서는 오전 7시(8.3%)와 오전 10시(8.02%)에 최고 발생빈도를 보이는 제1정점을 보이면서 이들 시각이 포함된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사이에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p<0.001$).
- 2) 심근경색증발생시각이 저녁 9시에도 제 1정점보다는 작지만 제2정점을 보이고 오전 6시부터 12시사이의 시간대가 오전 6시부터 12시사이의 시간대를 제외한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의미있게 증가되었다($p<0.001$).
- 3) 남자를 구분하여 발생시각을 분석하면 남녀간에서도 상기와 유사한 변화를 보였다($p<0.001$).
- 4) 50세이하의 환자들의 급성심근경색증발생시각은 오후 6시부터 12시사이가 오전보다도 더 많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나 오전 6시부터 12시사이와의 비교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p<0.062$).
- 5) 급성심근경색증발생의 월간 빈도는 11월과 12월에 높게 나타났으며, 계절적으로는 가을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겨울과 봄이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이들사이의 통계적유의성은 없었다($p<0.059$). 그러나 이들 계절과 여름을 비교시 여름이 의미있게 낮은 빈도를 보였다($p<0.001$).

이상의 결과에서 심근경색증발생시각이 일간분석에서는 아침인 오전 6시부터 12시사이에, 월간분석에서는 11월과 12월,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가을과 겨울에 높게 나타나고 여름이 낮게 나타나는 일간, 계절간 변화를 나타냈으며 이런 변화는 약물이나 다른 방법등에 의해서 조절할수 있으므로 이를 치료계획에 적용시킨다면 큰 도움을 얻을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10년 간격으로 본 급성심근경색 발생양상의 변동

경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황중현*, 배호상, 박동훈, 양동현, 신승철, 김태익, 조용근, 채성철, 전재은, 박의현

목적: 급성심근경색의 발생시간은 일중변동을 보일 뿐 아니라 계절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시대변천에 따른 심근경색발생 양상의 변동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어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1997년 7월부터 1998년 6월까지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된 205예(남자: 152예, 여자: 53예, 평균연령: 61 ± 12.8 세)를 대상으로 하여 심근경색의 일중 시간대별 및 계절별 발생빈도를 조사하여(Study II, SII), 과거 1986년 1월부터 1990년 8월까지 대구에 있는 4개 종합병원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받은 471예(남자: 342예, 여자: 129예, 평균연령: 61 ± 12.8 세)를 대상으로 공동연구하여 발표한 성적(Study I, SI)과 비교하였다.

성적: 1) 연령대별 분포는 SII에서는 60대가 32.2%로 가장 빈번하였으며, SI에서도 60대가 35.2%로 가장 높았다.

2) 성별에 따른 빈도는 SI과 SII 모두에서 남자에서 더 높았으며, 그 성적은 각각 72.6% 및 74.1%였다.

3) 일중 시간대별 발생빈도 역시 SI, SII 연구 모두에서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의 시간대에서 가장 높았고, 그 빈도는 각각 38.0% 및 31.8%였다.

4) 계절별 발생빈도는 SI에서는 사계절 중 봄(3, 4, 5월)에 유의하게 높았으나($P<0.01$), SII에서는 여름이 다른 계절과 비교하여 다소 높았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급성심근경색 발생양상 중 호발연령대와 성별 및 일중 시간대별 발생빈도는 과거 10년 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반하여 계절별 발생빈도는 차이를 보였다.